

기사희생 김진우, 5선발 퍼즐 완성할까



선발 테스트 3번만에 QS
임시선발 8경기 1승 7패
KIA 5선발 고민 해결 중책
“운이 좋았다...준비 더 할것”

기회 살린 김진우가 5선발 승률 높이기
에 도전한다.

잘 나가는 1위 팀 KIA의 고민 중 하나
는 5선발이다. ‘특급 원투펀치’ 혜터와 양
현중, 연작룩에 성공한 새 외국인 선수 팻
딘 그리고 ‘마운드 셋업’ 임기영까지 ‘막강
K4’가 구성됐지만 고정된 5선발 없이 선
발 로테이션이 돌아갔다.

우완 김윤동이 가장 먼저 선발로 테스트
를 받았고, 역시 오른손 투수 홍건희에 이
어 두 좌완 고효준·정동현이 나란히 선발
로 등판을 소화했다. 이후 김진우가 3차례
기회를 받는 등 ‘K4’를 제외한 선발 남은
한 자리는 변수 많은 자리였다.

결과도 좋지 못했다. 임시선발이 출격
한 8경기에서 KIA는 1승7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임시선발로 이름을 올렸던 5명의
투수는 모두 패전투수가 됐다. 그만큼 지
난 10일 kt전에 나서는 김진우의 어깨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렸다.

김진우에게 ‘마지막 기회’, 팀 입장에서
는 5선발 고민의 답을 찾는 무대였다.

이날 등판에 앞서 김기태 감독은 김진우
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언급했
다. 앞서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김진우는
7.2이닝 동안 12개의 사사구를 남발하며서
8실점으로 부진했었다. 기대 이하의 피칭
이었지만 김 감독은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세 번째 등판에도 위기는 많았다. 수비
진의 도움 속에 1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2회 선두타자 유한준을 안타로 내보낸 뒤
볼넷으로 무사 1·2루 위기에 몰렸다. 오태
곤의 희생번트에 이어 오정복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0-2. 계속된 실점 위
기를 박기혁의 병살타로 넘긴 김진우는 3
회에도 2사 이후 2개의 피안타와 두 번째
볼넷을 남겼다. 4회 선두타자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이후 안정감을 찾은 김진우는
5회를 넘어 6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졌다.

초반 난조는 있었지만 김진우는 6이닝 5
피안타 3볼넷 2타삼진으로 세 번째 도전
끝에 선발 임무를 완수했다. KIA 타자들이
kt 피어밴드 공략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김진우가 패전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만한 피칭이었다.

김 감독은 “초반에 점수를 안 줄 수도 있
었다”고 아쉬워하면서도 “노코멘트 작전
으로 김진우를 대할 생각이다(웃음). (선
발) 기회를 안 줄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
김진우의 다음 선발 등판을 보장했다.

위기를 넘고 반전에 성공한 김진우는 명
예회복은 물론 팀 고민 타파를 위한 막중
한 책임을 지게 됐다.

김진우는 11일 “어제 경기에서 운이 좋
았다”며 “아직 캠프 때의 느낌과 밸런스가
아니다.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준비 할것”이라고 언급했다.

‘천덕꾸러기’ 김진우가 KIA 마운드의
등장한 새 기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10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KIA 김진우가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율 2위 이명기 “계속 순위권에 있어야죠” 김기태 감독 “심동섭 부상 확장하겠어”

덕아웃 **T** 특특

▲계속 있어야죠 = 이명기의 이름이
드디어 타격 순위권에 등장했다. 이명기는
10일 kt와의 홈경기에서 8회 네 번째 타석
에 들어서면서 규정 타석에 진입했다. 규
정타석을 채우면서 11일부터 이명기의 기
록도 타격 순위권에 포함됐다. 이명기는 10
일 현재 0.400의 타율을 기록한 이대호에

이어 0.371의 타율로 2위 자리를 차지했
다. 이명기는 “계속 (순위권에) 이름이 있
어야죠”라고 웃으며 규정타석 진입에 대
한 소감을 밝혔다.

▲큰일 날 뻔했다 = 김기태 감독의 가슴
을 쓸어내리게 한 ‘안타 제조기’ 이명기
였다. 11일 경기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명기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명기진이다. 잘치고 있다. 내야안타 아니
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웃었다.

김 감독이 말한 ‘큰일’은 노히트 경기다.
10일 kt 선발로 나온 피어밴드는 특급 너
클볼로 KIA 타선을 완벽 봉쇄했다. 6회 2
사까지 무안타 경기를 했던 KIA는 이명
기의 유격수 내야안타로 간신히 첫 안타를
기록했다. 노히트 경기에서는 벗었지만
KIA는 이날 3안타에 그치며 0-3으로 시
즌 첫 영봉패를 기록했다.

▲확장하겠어 = 갑작스러운 부상 소식
에 애가 타는 김기태 감독이다. KIA는 11
일 경기에 앞서 엔트리를 교체했다. 2군에
서 재충전을 한 우완 홍건희와 한승혁이
등루했고, 좌완 심동섭과 우완 김광수가
엔트리에서 빠졌다. 심동섭은 어깨 통증
으로 재활군이 된 상황. KIA의 약점은 불

펜이다. 특히 몇 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좌
완 고민 속에 심동섭이 올 시즌 좌완 필승
조로 좋은 역할을 했던 만큼 김기태 감독
의 입에서 “확장하겠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한 아쉬운 부상이 됐다.

▲3kg이 빠져요 = 11일 광주 낮기온이
28도에 이를 정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
다. 당연히 훈련을 하는 선수들은 이내 땀
범벅이 됐다. 이 중에서도 포수 한승택은
“유난히 땀이 많다”며 땀을 닦느라 바빴
다. 마스크와 보호장비까지 착용해야 하
는 포수 입장에서는 더운 날씨가 달갑지
않다. 한승택은 “한여름에는 경기를 하고
나면 하루에 3kg이 빠지기도 한다”고 설
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



11일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4-3으로 경기 끝난 뒤 동료들로부터 음료시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톱타자가 딱이야 1번 선발 3타수 3안타...전날도 4출루 활약

톱타자로 나서니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의 장점이 극대화된다. 텍사스의 고민도 추신수가 풀려났다. 추신수는 11일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3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전날에도 1번 타자로 나서 4출루 2타수 1안타 3사사구에 성공한 추신수는 이를 연속 4번 씩 1루를 밟는 놀라운 출루 능력을 선보였다. 0.345이던 추신수의 출루율은 이틀간 8번의 출루로 0.383으로 치솟았다. 4월 26일 미네소타 트윈스전(3타수 1안타 1볼넷)을 합쳐 추신수는 1번 타자로 나선 3경기에서 13타석 8타수 5안타 5사사구를 기록했다. 1번 타자로서 남긴 타율은 0.625, 출

루율은 0.769다. 3경기 성적으로 속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추신수의 1번 타자 기용론’의 근거가 더 생긴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1204경기 중 411경기에서 1번 타자로 출전했다. 가장 익숙한 자리다. 1번 타자로 나선 때 성적은 타율 0.282, 출루율 0.389로 개인 통산 성적(타율 0.280, 출루율 0.382)보다 좋다. 그의 출루 능력에 반한 텍사스는 추신수와 7년 총 1억3000만 달러의 초대형 FA 계약을 했다. 톱타자로 돌아온 추신수는 10일과 11일 9타석에서 8차례나 출루하는 탁월한 출루 능력을 선보였다. 추신수에게 장기를 맡아줄 발휘할 순간이 왔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스키선수단 선전기원 스키인의 날’ 행사에서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월드컵에서 메달을 딴 이상호(오른쪽) 선수가 포상금을 받고 사진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스키 첫 평창 금 도전 이상호 “동기 부여엔 포상금이 최고죠”

“(포상금) 동기 부여가 되죠. 제 인생 목표가 건물주인데요.” 스키 국가대표 이상호(22·한국체대)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상호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에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다. 올해 2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스키 스노보드 남자 회전과 대회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3월 터키 월드컵 평창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스키가 국제 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이 대회의 이상호가 최하다. 이상호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스키인의 날’ 행사에서 월드컵

은메달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상호는 ‘포상금이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최고죠”라고 답해 인터뷰 자리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평창 올림픽 목표는 금메달”이라고 밝힌 그는 “인생 목표는 건물주”라고 웃으며 “선수로서 명예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내면 그에 맞는 대가와 관심을 받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당차게 말했다. 3월로 시즌을 마친 이상호는 “4월 초까지 사복고에서 교생 실습을 다녀왔다”며 “모교 후배들이라 그런지 그래도 알아봐 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즐거워했다. /연합뉴스